

2020학년도 제 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외숙	[서명]	

개최일시	2020년 4월 10일 (금) 오후2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김화경, 노명희, 서채원, 송기창, 여인권, 오명전, 이성림, 이정규, 임지혜, 전라옥, 홍석환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20.4.10	
		불참의원				
		기타참석자	기획처장, 기획팀장			

안건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	-----------------

배포자료 및 기타	1.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요약자료 2. 2019학년도 교비회계 기본 재무제표
-----------	--

■ 심의(자문) 사항

1. 의장은 대학평의원 총 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최를 선포하다.
2. 의장은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무회계팀 김경옥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3.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자문하다.
 - ① 의장은 2019학년도 교육비환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하고, 2018학년도 대비 프라임국고 105억원과 토지변상금수입 84.6억원을 제외하고 비교한 2019학년도 경상수입 59억원이라는 수치가 대학혁신사업 수입 46억원을 포함한 수치인지 질의하다. 재무회계팀장은 대학혁신사업 46.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라고 답변하다. 기획처장은 프라임사업 기준 산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프라임사업 기준 교육비환원율로 예상해 볼 때 대략 180%정도가 될 것 같다고 답변하다.
 - ② 이정규 의원은 등록금 수입에서 학부의 등록인원은 2018년도 대비 2명이 줄었으나 학부 수업료 3.6억이 늘어난 이유가 이·공계열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른 것인지 질문하다. 학부 수업료 3.6억이 늘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이탈 방지 관리와 예산수립 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다. 향후에는 결산자료를 이에 따라 보강하여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다. 예·결산지표에 따른 예·결산 분석이 되면 유용할 것임을 이야기하다.
 의장은 대학원 수업료 증가가 대학원 수업료 인상에 기인한 것이며 대학원 수업료 인상에 의한 수입증가 보다는 대학원 충원율을 높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다.
 - ③ 오명전 의원은 우리대학의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고 재무회계팀장은 전체 감가상각비는 최대 130억인데 건물 감가상각비 70억원 정도를 반영하였다고 답변하다. 이 부분이 경상지출에 반영되어 있는지 전라옥 의원이 질의하고 경상지출에 반영되어 있다고 답하다.
 - ④ 이성림 의원과 전라옥 의원이 조교급여와 급여조교와 장학조교 등 조교 명칭에 따른 차이점과 인원감축의 사유를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급여조교, 행정조교, 전임조교A는 촉탁직원과 같은 계약직 인원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계약직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⑤ 의장은 시설관리비 중 시설용역비는 어떤 용도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경비·환경미화 등의 용역비용이라고 답하고 용역업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비용 감축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⑥ 전라옥 의원이 국가장학금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자 기획처장은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수치가 줄어든 것이며, 올해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음을 답하다.

2020학년도 제 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위원장	결 재
	권익숙		

■ 심의(자문) 사항

- ⑦ 이정규 의원은 일반관리비 절감에 대한 노고를 칭찬하고, 연구비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연구비 지급을 위하여 공격적으로 사업화 가능한 연구과제 또는 학교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에 연구비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다.
- ⑧ 송기창 의원은 평의회 진행방식 및 예산자문진행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다
- 결산자문을 위해서는 기획처장이 아닌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주무처장, 즉 사무관리처장이 출석,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오늘 오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서상 평의회 자문 후 최종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 올바르다.
 - 또한, 평의원 중 3인의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데 평의원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령상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위원구성에 유의해야 한다.
 - 결산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는 예산대비 결산집행결과를 확인해야 자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결산자문을 위한 자료제공 시, 예산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어야 한다.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중 경상기부금을 이월하는 경우, 기부금 불용액에 대한 이월 대신 사업이월처리가 필요하다(이에 오명전 의원은 회계 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이후 집행할 때 반영하는 본교의 회계처리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 평의회 심의 및 자문안건으로 인해 참석한 사람이 발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발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 재무회계팀장은 대학평의회 결산심의 시 당해년도 예산 대비 비교를 하지 말고 과거 결산 데이터와 타대학과 비교한 자료로 변경 작성해달라는 과거 대학평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것임을 덧붙여 설명하다.
- ⑨ 홍석환 의원이 송기창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다. 2017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상태임을 지적하고 대학이라는 특수점을 고려해 볼 때 외부의 도움을 받아 TF를 구성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전환 시킬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또한 지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명여자대학교 만의 특징과 원칙을 찾아볼 수 없음에 아쉬움을 표하고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투자인 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연간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다. 송기창 의원이 제안처럼 예산 계획 대비로 보았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였을 것임을 이야기하다.
- ⑩ 기획처장은 의장과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다. 추후 결산자료는 예산 대비 지출결산으로 작성할 것임과 대학평의회 개최 순서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으로 조정하는 것, 결산 시 사무관리처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 전라옥 의원도 결산보고 시에는 예산 편성 대비 결산 자료를 제공하여 주되, 단순한 숫자적 비교만이 아닌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콘텐츠를 담아야 함을 당부하다.
- ⑪ 이정규 의원도 예산 대비 결산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평의회의 기능 중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문이 있는 만큼 결산을 통해서 집행을 적절성 여부를, 향후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등의 자문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다. 또한 사업비예산 대비 결산 중심의 평가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효과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임도 이야기하다.

2020학년도 제 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익숙



■ 심의(자문) 사항

송기창 의원은 우리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예산 체계가 사업비예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만을 가지고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다.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은 지난 2년간 예산편성 시 발전계획에 맞춘 사업성예산 환류를 시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대학평의위원회는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의 기능이 있으므로 발전계획 대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다.

⑫ 오명전 의원은 앞으로 자료제공 시 본예산, 추경, 결산 세 컬럼으로 나누어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 해줄 것을 요청하다. 본예산 시 예상했던 운영 수지와의 편차가 크다면 그것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다. 결산자료가 대외비 자료인지를 문의하고 회계감사 때 수정사항이 있다면 함께 제공해줄 것과 회의 때 제공해 준 결산 요약자료도 홈페이지에 함께 공지하여 구성원들이 학교재정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⑬ 의장은 교비회계 결산자료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최소한 2, 3일 전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다. 송기창 의원과 오명전 의원도 교비회계 결산 자료를 사전에 제공 해줄 것을 당부하다.

⑭ 송기창 의원은 추경예산 후의 결산 금액임에도 잔액이 남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다. 해당 사업 진행을 하는 부서에서 운영지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함도 이야기하다. 적자 운영되는 곳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적자를 적립금 사용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⑮ 의장은 미래교육원 수입 감소의 이유를 질의하다. 기획처장은 미래교육원은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던 상황이며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 답변하고, 법인전입금 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추경예산 후에도 잔액이 남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1월에 집행하여야 할 입학식, 새내기 대상 행사 등의 취소가 있었음을 답변하다. 예산편성 시의 애로점으로는 예기치 못한 교직원 의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인건비 추경에 어려움이 있음도 이야기하다.

오명전 의원과 의장은 결산자료 공개 시 학교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익부서의 손익 분석도 함께 오픈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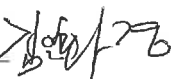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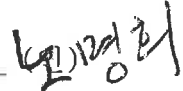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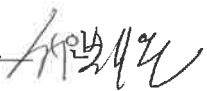





이정규 의원은 수입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달성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함과 수입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이번 2학기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학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강 신청 전 학과 단위 상담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그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등록률 제고를 위한 한시적인 장학금 지급 방안을 제시하다.

기획처장은 본예산 대비 운영 수지에 대한 차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46.5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명신관 뒤 부지 매입 20억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다. 과거 1학년 2학기 때 정시 입학생의 50% 정도는 반수를 하며 이탈해 왔으나 올해 1학년 휴학 금지 제도 실행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확보되었음을 설명하다.

4.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을 마치고 3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여인권</u> 	부의장 <u>이정규</u> 
의 원 <u>김화경</u> 	의 원 <u>노명희</u> 
의 원 <u>서채원</u> 	의 원 <u>송기창</u> 
의 원 <u>오명전</u> 	의 원 <u>이성림</u> 
의 원 <u>임지혜</u> 	의 원 <u>전라옥</u> 
의 원 <u>홍석환</u> 